

한국판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 타당화*

김 은 하¹⁾ 박 정 수[†]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Everyday Ageism Scale: E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만 60세 이상 성인 남녀 4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무선적으로 두 집단을 추출해 첫 번째 집단(198명)에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집단(300명)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10개 문항, 3개 하위요인(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판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K-EAS)의 내적 신뢰도, 수렴타당도,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와 내면화된 연령주의는 노인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 및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EAS가 우울에 대한 명시적인 노인 차별 피해 경험 외에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K-EAS 활용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주요어 : 연령주의, 연령차별, 한국판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 척도 타당화

* 본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195).

1)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교신저자 : 박정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 206, 율곡관 515호, Tel: 031-219-2769,

E-mail: jeongsoopark@ajo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재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세대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정순돌 등, 2016), 이러한 특정 연령집단을 향한 편견, 고정관념 및 차별적 태도 및 행동을 연령주의(Ageism)라고 한다(Butler, 1987; McGowan, 1996). 연령주의는 이론적으로 모든 연령집단을 타깃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Nelson, 2005), 최초로 연령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 Butler(1969)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연령주의를 노인에 대한 차별로 한정 지었고, 연령주의 척도들도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발되어 왔다(정경희 등, 2015; Butler, 1969; Levin & Levin, 1982).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척도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연령주의를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노인에 대한 존경이나 공경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왔다(Luo et al., 2013).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연령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령,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취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리 등, 2020).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노인을 사회적인 부담으로 여기거나 노인은 젊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형태로 노인을 향한 혐오와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배수연, 김기연, 2022; Sutter et al., 2022).

연령주의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몇 문헌 연구들에서 연령주의와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주의는 노인의 신체 건강 상태, 인지 장애, 음주 및 흡연 문제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et al., 2020; Levy et al., 2012; Villiers-Tuthill Copley et al., 2016). 또한 연령주의는 심리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령주의는 노인의 높은 우울, 불안 및 낮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eeman et al., 2016; Gum & Ayalon, 2018; Han & Richardson, 2015; Kang & Kim, 2022). 특히, 연령주의를 많이 경험하는 노인은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및 높은 무기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th et al., 2010).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Levy(2009)의 고정관념구현이론(Stereotype Embodiment Theory)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장기간 노출되면, 해당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노화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연령주의를 경험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Levy, 2009).

이처럼, 연령주의가 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이나 세대 간 갈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먼저, 연령주의 초기 연구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척도로는 Tuckman과 Lorge(1953)의 Attitudes Toward Old People

Measure, Kogan(1961)의 Attitudes Toward Old Persons Scale 그리고 Rosencranz와 McNevin(1969)의 The Aging Semantic Differential Test가 있다. 이 척도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에 있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연령주의의 인지적 차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0년에는 연령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척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가 Fraboni의 Fraboni Scale of Ageism(FAS)인데, 이 척도는 적대적인 발언(antilocution), 회피(avoidance), 차별(discrimination)이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김지연과 동료들(2012)에 의해 타당화되었다. 또 다른 척도로, Palmore(2001)가 개발한 Ageism Survey(AS)가 있는데, AS는 노인 자신들이 연령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개발된 척도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개발된 연령주의 척도로는 김주현(2012)의 연령주의 척도와 지은정(2017)의 연령주의 척도가 있다. 이 척도들은 각각 7요인(노화불안, 부정적인 고정관념 및 편견, 기피,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모변화, 차별적 행동,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노인 기피 및 회피), 4요인(고정관념, 편견, 태도, 차별)으로 구성되어 연령주의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측정한다. 또한 원영희(2005)가 개발한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는 노인들이 타인으로부터 당하는 무시, 기피, 소외 경험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되었지만, 이 척도들은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이 척도들은 일반 성인들의 노인집단에 대한 인식, 태도, 행

동을 평가하기 때문에 노인이 어떤 연령주의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노인의 내면화된 연령주의, 즉 자기연령주의(self-directed ageism)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는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연령주의 뿐만 아니라 자기연령주의는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maioli & Contarello, 2019). 둘째, 기존 척도들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이면서 미묘한 연령주의(예. 노인에 대한 농담)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주의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일상에서 미묘한 수준으로 나타난다(Lewis et al., 2023). 예를 들어, 노인에게 말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인의 청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연령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또한, 노인은 남은 여생이나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노인을 부정적 혹은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은 일할 능력이 없다는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Cuddy et al., 2005). 이러한 예시들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능력을 저하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차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Sue, 2010).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하거나 미묘한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고(Allen et al., 2022b), 노화가 가속화되어 만성질환의 증가나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Adam et al., 2018; Allen, 2016). 따라서 노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연령주의를 반영한 연령주의 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이 강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명백한 차별은 줄고 있지만, 미묘한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기 때문에(문채영, 심재웅, 2023; Babcock et al., 2016),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 연령주의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llen 등(2022a)은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Everyday Ageism Scale: EAS)를 개발하였다. EAS는 총 10문항으로,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라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하위척도인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Exposure to ageist message)은 4개의 문항으로, 노인들이 일상에서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한다. 두 번째 하위척도인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Ageism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는 사람들이 노인을 얼마나 능력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마지막 하위척도는 내면화된 연령주의(Internalized ageism)로 노인들이 얼마나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했는지를 측정한다. Allen 등(2022b)은 EAS를 사용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미국 노인의 93.4%가 매일 연령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다음으로,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22b). EAS는 신뢰도나 타당도 및 요인구조에 있어 엄격하게 검증되었고,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포함한 일상 속 연령주의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 간결하여 노인들에게 실시하기에 용이하

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AS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세부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1에서는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E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 모형을 검증하고, 원칙도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연령주의 3개 하위요인(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과 관련이 있는 노인 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우울, 삶의 만족도와 EAS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 및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K-EAS의 증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울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와 K-EAS를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와 K-EAS는 노인차별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개념을 공유하지만,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는 노인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무시나 회피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는 반면에 KEAS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일상 속 차별 경험과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측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증분타당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EAS를 한국판 일상속 연령주의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이하 K-EAS)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K-EAS가 한국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한 연령주의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풀에 등록되어 있는 정년 기준만 60세(고용노동부, 2024)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고, 참여자들은 3,000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총 498건의 설문문이 수거되었고, 이 중 무선적으로 선정된 198건(40%)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198건의 응답자 연령은 평균 70.328($SD=4.539$)세, 성별은 남성 87명(43.9%), 여성 111명(56.1%), 최종학력은 초중학교 졸업 4명(2.0%), 고등학교 졸업 49명(24.7%), 대학교 졸업 114명(57.6%), 대학원 졸업 이상 31명(15.7%)이었다 또한, 혼인 형태는 미혼/비혼 11명(5.6%), 기혼 179명(90.4%), 이혼 7명(3.5%), 사별 1명(.5%)이었고,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자 34명(17.2%), 영업직 4명(2.0%), 생산/노무직 10명(5.1%), 서비스직 12명(6.1%), 전문직 9명(4.5%), 자영업 28명(14.1%), 주부 56명(28.3%), 무직 31명(15.7%), 은퇴 14명(7.1%)이었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활용한 198건의 설문을 제외한 300건(60%)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71.412($SD=4.911$)세, 성별은 남성 156명(52%), 여성 144명(48%), 최종학력은 초중학교 졸업 9명(3.0%), 고등학교 졸업 84명(24.7%), 대학교 졸업 167명(55.7%), 대학원 졸업 이상 40명(13.3%)이었다. 또한 혼인 형태는 미혼/비혼 8명(2.7%), 기혼 277명(92.3%), 이혼 6명(2%), 사별 9명(3%)이었고, 직업은 일반 사무/관리자 57명(19%), 영업직 6명(2%), 생산/노무직 19명(6.3%), 서비스직 14명(4.7%), 전문직 17명(5.7%), 자영업 52명(17.3%), 주부 76명(25.3%), 무직 42명(14%), 은퇴 17명(5.7%)이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K-EAS의 수렴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우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을 사용하였다.

일상 속 연령주의 척도

Allen 등(2022a)이 개발한 일상 속 연령주의(Everyday Ageism Scale: EAS) 척도는 총 10문항, 3개의 하위척도(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많이 노출되거나(하위척도 1)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를 많이 경험하거나(하위척도 2) 내면화된 연령주의가 강함(하위척도 3)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노인이나 노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읽는다”(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 “사람들은 나의 기

역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한다”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사람들은 나의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한다”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내면화된 연령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AS를 다음의 과정을 통해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먼저, EAS를 개발한 Allen 등(2022a)에 연락하여 척도 사용과 번역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이후, 상담심리교수 1인과 임상심리교수 1인이 독립적으로 모든 문항과 지시문을 번역하였고, 협의를 통해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심리교수 1인이 번역된 문항과 지시문을 영어로 역번역하고, 또 다른 상담심리 교수 1인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원문항과 번역된 문항간의 일치도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4점 이하인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번역을 마무리하였다.

노인차별 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노인차별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원영희(2005)가 관련 연구(예. 김윤정, 정선아, 2001; 김혜경, 1997; 박경란, 이영숙, 2001)를 통해 살펴본 노인차별에 대한 내용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한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개 문항, 3개의 하위요인(무시, 기피, 소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3=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하

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당한 적이 있다”, “내가 아플 때 남들이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다”가 있다. 원영희(200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19로 나타났다.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나이 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Sun, Kim과 Smith(2017)가 필라델피아 노화연구소 노인용 자기 척도의 하위척도인 자신의 노화경험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Own Aging subscal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 Scale(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와 베를린 노화 연구(Berlin Aging Study)를 토대로 개발한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 척도(Self-Perception of Aging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문항, 2개의 하위척도(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나이 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혹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인식의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젊었을 때와 비슷하게 행복하다”, “나는 내가 나이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가 있고 부정적인 인식의 예시 문항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가 있다. Sun 등(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인 인식은 .82, 부정적인 인식은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은 .753, 부정적인 인식은 .799로 나타났다.

우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와 Cleary(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등(1984)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0개 문항, 9개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는 13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자책을 잘한다”, “매사에 걱정이 많다”가 있다. Derogatis 등(197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1985)이 개발하고 안신능과 서은국(2006)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나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가 있다. 박미경과 김은하(201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5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문항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축요인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K-EAS의 수렴 및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노인차별 피해경험,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 우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K-EAS의 증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우울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와 K-EAS를 예언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문항 선별을 위해 예비 K-EAS 10문항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 이상 혹은 .3 이하로 상관관계가 있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10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KMO (Kaiser-Meyer-Olkin) 값은 .854, Barlett 구형성 지표(Barlett's Test of Sphericity)는 $\chi^2 (n=300) = 1452.911 (p < .001)$ 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분포가 정규성을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가 1미만으로 나타나, 자료가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Hong, Maillk & Lee, 2003). 주축요인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스크리 도표도 네 번째 요인 이후부터 평평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평행분석 결과도 3요인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원적도도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인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3개로 고정하고 주축 요인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절대값 .40이하이거나 교차 부하량이 .10미만인 문항이 없어 문항 삭제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K-EAS는 10개 문항, 3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 보면, 표 1과 같이, 3요인의 총 설명량은 50.955%이었고, 각각 1요인은 34.368%, 2요인은 9.845%, 3요인은 6.741%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은 적절한 수준(.326~.679)의 공통성(communality)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1요인은 원적도의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5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원적도와 동일하게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원적도의 '내면화된 연령주의'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3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원적도와 동일하게 '내면화된 연령주의'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3요인은 원적도의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2개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원적도와 동일하게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로 명명하였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5. 사람들은 나의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짐작한다.	.824	.336	.368
6. 사람들은 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700	.250	.383
4. 사람들은 나의 시력이나 청력이 안 좋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665	.352	.260
7.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거나 가치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658	.233	.384
3.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587	.266	.316
8. 누구나 나이가 들면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이 많아진다.	.417	.814	.195
9.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낀다.	.295	.777	.247
10.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288	.508	.217
2. 노인이나 노화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읽는다.	.349	.229	.816
1.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농담을 듣거나 보거나 읽는다.	.337	.162	.620
초기 고유값	3.909	1.420	1.150
신뢰도	.797	.761	.700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결과

모형	$\chi^2(df)$	CFI	TLI	RMSEA	SRMR	AGFI
3요인 모형	44.113(32), ns	.985	.979	.036 (0~0.059)	.021	.953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10개 문항, 3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3요인 모형의 적합도는 CFI는 .985, TLI는 .979, RMSEA는 .036(0~0.059), SRMR는 .021, AGFI는 .953으로 나타났다. 즉, CFI, TLI와 AGFI는 .90 이상, RMSEA와 SRMR은 .05이하 기준에 따라 K-EAS의 3요인 모형은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그림 1에 제시한 대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577~.802으로 모든 문항이 .50이상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1.96이상($p < .01$) 기준에 부합하였다. 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요인 1

과 요인 2는 .408, 요인 2과 요인 3은 .293, 요인 1과 요인 3은 .480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K-EAS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분산 추출(AVE)과 개념신뢰도(CR)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AVE는 모든 요인에서 .5이상, CR은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요인 1, 요인 2, 요인 3간의 상관관계는 .402~.478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관계수들의 제곱은 모두 AVE값에 비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판별타당성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타당도 검증

K-EAS의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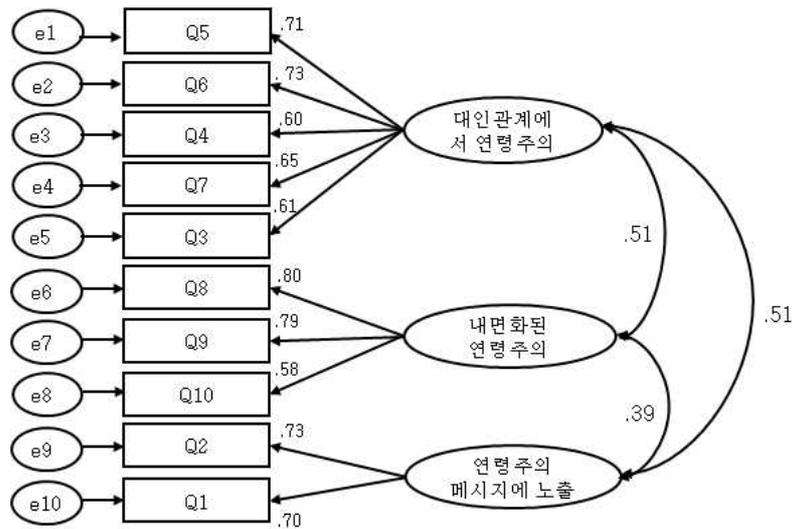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표 3. 집중타당도 결과

하위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AVE	CR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 Q5	1		.711	.798	0.972
	→ Q6	1.139	.108	.727		
	→ Q4	.858	.095	.605		
	→ Q7	.898	.092	.656		
	→ Q3	.763	.084	.609		
내면화된 연령주의	→ Q8	1		.802	.800	.972
	→ Q9	.973	.091	.792		
	→ Q10	.657	.074	.577		
연령주의 메시지에 노출	→ Q2	1		.730	.778	.968
	→ Q1	.930	.159	.705		

표 4. 하위요인간 상관분석 결과

	1	2	3
1. 대인관계 연령주의	-	.478**	.456**
2. 내면화된 연령주의		-	.402**
3. 연령주의 메시지에 노출			-

** $p < .01$

표 5. K-EAS와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	K-EAS 총점
노인차별 피해경험	.520**	.364**	.339**	.563**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 긍정적인 인식	-.219**	-.375**	-.055	-.299**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 부정적인 인식	.347**	.496**	.223**	.472**
우울	.353**	.461**	.138*	.440**
삶의 만족도	-.144*	-.314**	-.060	-.229**

* $p < .05$, ** $p < .01$

차별 피해경험 척도와 노화에 대한 자기 인식 척도(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와의 상관 관계를,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K-EAS 총점과 하위척도들은 모두 노인차별 피해 경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인식,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연령주의적 메시지를 제외하고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AS의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K-EAS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1단계에서는 노인차별 피해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K-EAS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1과 같이, 노인차별 피해경험은 우울의 29.3%를 설명했

으며, K-EAS는 추가로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AS가 노인차별 피해경험 척도가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한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K-EAS의 증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표 6-2처럼, 2단계에서 K-EAS가 추가적 설명량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EAS의 증분타당도는 우울에 있어서는 검증된 반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논 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인구고령화 및 낮은

표 6-1. 우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R ²	ΔR ²	F	β	t
1단계					
노인차별 피해경험	.293	.293	123.529 ^{***}	.541	11.114 ^{***}
2단계					
노인차별 피해경험	.315	.027	69.854 ^{***}	.430	7.418 ^{***}
KEAS				.198	3.425 ^{***}

*** p<.01

표 6-2.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R ²	ΔR ²	F	β	t
1단계					
노인차별 피해경험	.081	.081	26.149 ^{***}	-.284	-5.114 ^{***}
2단계					
노인차별 피해경험	.088	.007	14.274 ^{***}	-.227	-3.383 ^{***}
KEAS				-.101	-1.512

*** p<.01

취업률로 기인한 경제적 부양부담감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김주현 등, 2020). 연령주의가 노인의 심리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예. 세대간 갈등, 노인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Orth et al., 2010; Shimizu et al., 2022), 노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연령주의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검증되어 사용되고 있는 EAS를 번역-역번역을 통해 한국어로 변환한 K-EAS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핵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EAS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10문항,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요인 1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대인관계에서 연령주의’로, 노인은 특정 능력(예. 기억력, 스마트폰 사용 능력, 시력)이 떨어지거나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짐작한다는 내용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요인은 노인에 대한 양가적 연령주의(Cary et al., 2017), 즉, 적대적 연령주의와 온정적 연령주의를 모두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K-EAS는 일상 속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때문에 노골적이거나 혐오적인 태도나 차별(예. ‘노인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짜증난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불평이 많다’)을 측정하는 문항은 없지만 노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적대적 연령주의를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EAS는 노인이 거절해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문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노인을 보호할 존재로 간주하는 온정적 연

령주의도 반영되어 있다.

요인 2는 ‘내면화된 연령주의’로, 원칙도와 동일하게 노인들이 내면화한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연령주의에서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기존 노인차별 척도에서 간과된 ‘내면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들은 타인의 무시나 회피적 행동, 즉, 대인관계적 연령주의에 비해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n et al., 2022b), 특히, 많은 노인들이 노화를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발달과정으로 보기보다는 ‘문제’나 ‘쇠퇴’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u et al., 2021). 이러한 내면화된 연령주의는 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령, 내면화된 연령주의가 강할수록, 노년기에 겪는 질병을 노화의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권장 치료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호선, 2012).

다음으로, 요인 3은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로, 이 요인도 원칙도와 동일하게 일상에서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나 농담을 얼마나 읽고, 듣고, 보는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노인이나 노화와 관련한 부정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농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노인에 대한 농담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고 25%만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Palmore, 1990), 농담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노인에게는 연령주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인들은 미디어(예. 신문, TV, YouTube)를 통해서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에서의 농담은 한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연령주의일 수 있지만, 여전히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endron et al., 2016).

이러한 K-EAS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 요인은 원칙도가 이 전에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타당화된 적이 없어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칙도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화보편적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각 요인에 포함되는 연령주의적 내용들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연령주의가 타인에 의한 연령주의인지(‘대인관계적 연령주의’), 자신이 내면화된 연령주의인지(‘내면화된 연령주의’),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인지는 동일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EAS의 하위 요인들은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Allen 등(2022a)의 원칙도 개발 연구와 본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가 .171~.316과 .293~.480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개의 상위범주로 묶이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개념인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K-EAS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인관계적 연령주의’와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과 유사한 개념인 (타인에 의한) 노인차별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와 ‘내면화된 연령주의’와 관련된 개념인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K-EAS의 총점과 하위요인들은 노인차별 피해 경험과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EAS의 ‘대인관계적 연령주의’ 요인은 노인차별 피해경험과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노인차별 피해 경험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내면화된 연령주의’ 요인은 노인차별 피해 경험에 비해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긍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인식)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상된 결과로, ‘대인관계적 연령주의’ 요인은 타인에 의한 연령주의이기 때문에 노인차별 피해경험과 높은 상관을 ‘내면화된 연령주의’ 요인은 자신에 의한 연령주의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요인(‘대인관계적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이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의 경우, 노인 개인 당사자를 타깃으로 하는 직접적인 연령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주의적 메시지 노출’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셋째, K-EAS의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과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점과 세 개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삶의 만족도와도 유의

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EAS의 준거 타당도를 입증하는 결과로, 연령주의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어려움에 취약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예. Kang & Kim, 2022; Orth et al., 2010)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이 우울과는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의 상관성이 있었고,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주의가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연령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이 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Allen 등(2022b)의 연구에서도,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과 노인의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연령주의적 메시지를 단순한 농담이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7년 이상의 종단연구들에서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는 안정적인 변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Gana et al., 2013), 간접적인 차별만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증분타당도 분석을 통해, K-EAS가 우울에 대한 노인차별 피해 경험 척도의 설명량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의 경우, K-EAS는 추가적인 설명량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으로, 60대 이전에 이미 형성된 삶의 만족도 수준은 연령주의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투입된 노인차별 피해 경험 척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량은 8.1% 정도로, 유의하였지만, 우울에 대한 설명량(2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K-EAS의 학문적 의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연령주의의 다차원적 요소(타인에 의한 직접적인 연령주의, 내면화된 연령주의,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를 동시에 측정하는 척도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K-EAS는 문항이 많지 않아 간단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청년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세대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주현 등, 2020), 본 연구는 연령주의에 대한 양적 연구들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령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이 우울이나 삶의 만족도와 어떤 상이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연령주의를 경험할수록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이 밝혀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연령주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의한 혹은 자신에 의한 연령주의와 연령주의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우울 및 삶의 만족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 차별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K-EAS의 활용에 대해 논의해보면, 첫째, K-EAS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는 노인에 대한

연령주의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정책, 프로그램, 상담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으나, K-EAS는 연령주의의 다차원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K-EAS는 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가령, 노화 과정을 시작하거나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내담자를 상담할 때, 외부적 스트레스원을 살펴보면서 K-EAS를 실시하여 내담자가 어떤 연령주의를 경험하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에 비해 나이가 어린 청년층이거나 중장년층인 경우, K-EAS를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담자의 연령주의 경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K-EAS는 노인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이미 일부 기관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노인학대에 초점을 맞추거나 노인을 '보살핌'이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본 척도의 문항 내용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로 하여금 연령주의의 정의(예. 노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함, 노인에 대한 농담)를 확장하도록 도와준다면 미묘하거나 온정주의적 연령주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K-EAS를 활용하여, 노화에 대한 자신의 내면화된 편견을 인식하고 더 긍정적인 태도(예. '새로운 기회', '지속적인 성장')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기관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참여자의 70% 정도가 70세 이하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대가 더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K-EAS는 일상에서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묘한 차별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이 K-EAS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연령주의 경험을 반영하는 문항이 소수라는 점은 한계가 될 수 있다. 또한 K-EAS는 10개 문항 중 한 개의 문항만이 온정적인 연령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연령주의나 온정적인 연령주의를 측정할 때는 각각 Fraboni 등(1990)의 노인차별주의 척도(Fraboni Scale of Ageism; FSA)나 Cary 등(2017)의 양가적 연령주의 척도(Ambivalent Ageism Scale; AAS)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K-EAS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더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변별타당도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적 연령주의와 연령주의적 메시지 그리고 내면화된 연령주의를 측정하는 EAS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K-EAS가 노인상담이나 노인차별예방 교육에 활용되면서 그 타당성이 계속 검증되고 일상 속의 연령주의의 심각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민감

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노인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4).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83%81%EC%97%B0%EB%A0%B9%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3%A0%EB%A0%B9%EC%9E%90%EA%B3%A0%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 검사 실시 요강. 중앙적성연구소.

김미리, 이선희, 정순돌 (2020). 연령주의가 세대갈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40(6), 1109-1127.

김윤정,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김주현 (2012). 연령주의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 한국노년학, 40(4), 659-689.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89-106.

김혜경 (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문채영, 심재웅 (2023). 게임이용이 장애인에 대한 양가적 차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4(3), 5-33.

박경란, 이영숙 (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박미경, 김은하 (2016).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과 진로 결정몰입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1), 207-225.

배수연, 김기연 (2022). 한국 청년 및 장년 세대의 노인에 관한 연령주의의 심리적 기제: 연령사회정체성과 노화불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2(3), 260-281.

이호선 (2012). 노인상담(2판). 학지사.

안신능, 서은국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논문집.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4), 319-339.

정경희, 황남희, 이선희, 김주현, 정순돌 (2015). 연령통합지표 개발과 적용. 한국보건사연구원.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지은정 (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Adam, E. K., Quinn, M. E., Tavernier, R., McQuillan, M. T., Dahlke, K. A., & Gilbert,

- K. E. (2017). Diurnal cortisol slopes and mental and physical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neuroendocrinology*, *83*, 25-41.
- Allen, J. O. (2016). Ageism as a risk factor for chronic disease. *The Gerontologist*, *56*(4), 610-614.
- Allen, J. O., Solway, E., Kirch, M., Singer, D., Jullgren, J. T., & Malani, P. N. (2022a). The Everyday Ageism Scale. *Journal of Aging Health*, *34*(2), 147-157.
- Allen, J. O., Solway, E., Kirch, M., Singer, D., Kullgren, J. T., Molse, V., & Malani, P. N. (2022b). Experiences of everyday ageism and the health of older US adults. *JAMA Network Open*, *5*(6): e2217240.
- Babcock, R. L., MaloneBeach, E. E., Hannighofer, J., & Woodworth-Hou, B. (2016). Development of a children's IAT to measure bias against the elderly.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4*(3), 167-178.
- Butler, R. N. (1987). "Ageism" *The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22-23.
- Cary, L. A., Chasteen, A. L., & Remedios, J. (2017). The ambivalent ageism scale: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cale to measure benevolent and hostile ageism. *The Gerontologist*, *57*(2), e27-e36.
- Chang, E. S., Kanno, S., Levy, S., Wang, S. Y., Lee, J. E., & Levy, B. R. (2020). Global reach of ageism on older persons' health: A systematic review. *PLoS One*, *15*(1)
- Cuddy, A. J., Norton, M. I., & Fiske, S. T. (2005). This old stereotype: The pervasiveness and persistence of the elderly stereotype.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67-285.
- Derogatis, L. R., & Cleary, P. A. (1977). Confirmation of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the SCL-90: A study in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4), 981-989.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reeman, A. T., Santini, Z. I., Tyrovolas, S., Rummel-Kluge, C., Haro, J. M., & Koyanagi, A. (2016). Negative perceptions of ageing predict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Findings from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Irish Longitudinal Study on Ageing (TILD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9*, 132-138.
- Gana, K., Bailly, N., Saada, Y., Joulain, M., & Alaphilippe, D. (2013). Does life satisfaction change in old age: Results from an 8-year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and Social Sciences*, *68*(4), 540-552.
- Gendron, T. L., Wellford, E. A., Inker, J., & White, J. (2016). The language of ageism: Why we need to use words carefully. *The Gerontologist*, *56*(6), 997-1006.
- Gum, A. M., & Ayalon, L. (2018). Self-perceptions of aging medi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of hopeless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3*(4), 591-597.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 Journal on Aging*, 9, 56-60.
- Han, J., & Richardson, V. E.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discriminatio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ge discrimination. *Aging & Mental Health*, 19(8), 747-755.
-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Hu, R. X., Luo, M., Zhang, A., & Li, L. W. (2021). Association of ageism and health: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observational studies. *Research on Aging*, 43(7-8), 311-322.
- Kang, H., & Kim, H. (2022). Age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Gerontology and Geriatric Medicine*, 8.
- Kogan, N. (1961a).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fo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Levin, J. & Levin, W. (1982). Ageis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Belmont, Wadsworth.
- Levy, B. R. (2009). Stereotype Embodiment: A Psychosocial Approach to Ag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6), 332-336.
- Levy, B. R., Slade, M. D., Murphy, T. E., & Gill, T. M. (2012). Association between positive age stereotypes and recovery from disability in older persons. *JAMA*, 308(19), 1972-1973.
- Lewis, H., Patt, S., Gietzen, L., & Buchanan, J. (2023). Age-related microaggressions: A follow-up descriptive study. *Innovation in Aging*, 7(Suppl 1): 654.
- Liang, J., & Bollen, K. A. (1983). The structur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8(2), 181-189.
- Luo, B., Zhou, K., Jin, E. J., Newman, A., & Liang, J. (2013). Ageism among college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S. and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8, 49-63.
- McGowan, T. G. (1996). Ageism and Discrimination. In V.W. Marshall, T.R. Cole, A.Svanborg, E.J. Masoro, K.W. Schaie & J.E. Birren (Eds.),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ge, Aging, and the Aged* (pp. 71-80). Academic Press.
-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 Orth, U., Trzesniewski, K. H., & Robins, R. W.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658.
-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2nd Edition, Springer.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Romaioli, D., & Contarello, A. (2019). "I'm too old for ..." looking into a self-sabotage rhetoric and its counter-narratives in an Italian setting. *Journal of Aging Studies, 48*, 25-32.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Gerontologist, 9*, 55-59.
- Shimizu, Y., Suzuki, M., Hata, Y., & Sakaki, T. (2022). Negative attitudes of healthy older adults toward unhealthy older adults: Focus on the subjective health.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05*, 104850.
- Sun, J. K., Kim, E. S. & Smith, J. (2017). Positive self-perception of aging and lower rate of overnight hospitalization in the US population over age 50. *Psychosomatic Medicine, 79*(1), 81-90.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John Wiley & Sons, Inc.
- Sutter, A., Vaswani, M., Denice, P., Choi, K. H., Bouchard, J., & Esses, V. M. (2022). Ageism toward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support.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10.1111/josi.12554*.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111/josi.12554>.
- Tuckman, J., and Lorge, I. (1953).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249-260.
- Villiers-Tuthill, A., Copley, A., McGee, H., & Morgan, K. (2016). The relationship of tobacco and alcohol use with ageing self-perceptions in older people in Ireland. *BMC public health, 16*, 627.

논문 투고일 : 2024. 01. 04
1 차 심사일 : 2024. 01. 08
게재 확정일 : 2024. 02. 2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Eunha Kim

Jeongsoo Park

Ajou University

This study validated and investigated the psychological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Everyday Ageism Scale to measure subtle ageism in day-to-day lives. A total of 498 adults aged 60 and above participated in this study, which involved measuring the everyday ageism scale,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 self-perception of aging scale, depression (SCL-90R), and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The sample was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n=198$) was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the second group ($n=300$) was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ity testi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K-EAS consists of 10 items and 3 dimensions (i.e., exposure to ageist messages, ageism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internalized ageism),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scale. K-EAS demonstrated good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incremental validity. In specific, ageism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internalized ageism were correlated with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 nega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depression. However, ageism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internalized ageism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Also, the K-EAS provided additional explanation of depression even when excluding the effect of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 The result confirms that K-EAS is reliable and vali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the use of K-EA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ageism, age discrimina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Everyday Ageism Scale, scale validation